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영국, 경기침체로 보험사기 기승

□ 영국보험협회(ABI)는 실물경제가 침체된 2008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ABI는 2008년 한 해에 건수 기준으로 107,000건이, 지급보험금 기준으로는 7억 3천만 파운드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함.
- ABI가 보험사기 규모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은 2008년에는 보험사기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사기성 지급보험금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2004	2억 6천만 파운드	-
2005	4억 1천만 파운드	57.7%
2006	4억 7천만 파운드	14.6%
2007	5억 6천만 파운드	19.1%
2008	7억 3천만 파운드	30.4%

□ 2008년 보험사기 중 발생빈도 측면에서는 주택보험의 보험사기가 55,000건을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5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3억 6천만 파운드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49.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자동차보험사기 유형은 절벽 아래로 차를 떨어뜨린 후 공원에서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형태로서 주로 보험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ABI는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1년 평균보험료를 40파운드 정도 인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는 특히 경기침체기에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험사기는 ‘한 개인의 동시다발성 보험금 신청’, ‘보험가입 후 단기간 내 보험금 신청’ 등 주로 평범하지 않은 사항을 체크함으로써 적발되고 있다고 발표함.

(BBC News 4/16)